

장례예식 ❧

죽음은 생명의 종말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며 천국의 문이 열리는 사건이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소망이요 보증이다.

1. 죽음의 준비와 임종

◆ 죽음의 준비

돌발적인 사고나 급환으로 죽는 것은 할 수 없지만 환자가 죽음을 예상했거나 죽음을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될 때는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한다.

- ① 신앙적 준비 : 부활신앙과 내세관을 통해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게 한다. 마지막 순간을 회개와 기도로써 보냄이 바람직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 품에 위탁하도록 도와야 한다.
- ② 가족의 준비 : 유서를 작성하거나 유언을 녹음해 둔다.
- ③ 장례를 위한 준비 : 장의사 교섭, 장치 확보(화장터 예약), 수의, 사진, 조화 등을 준비한다.

◆ 임 종

사람의 호흡이 정지되는 것을 운명이라고 하고, 한 사람의 운명을 지켜보는 것을 임종이라 한다. 불의의 사고나 급병에 의한 죽음이 아니면 가족들이 모여 임종하는 것이 좋다. 소속 교회의 교역자가 함께 하는 것이 더욱 좋다. 임종 전후 본인이 애창하던 찬송을 부르거나 원하는 성구를 낭독하는 것이 좋다.

◆ 시신의 처리

교역자의 지도 아래 유족이나 교인의 힘을 함하여 시신을 처리한다. 이 때 장의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 ① 적당한 높이의 베개로 머리를 바로 잡는다.
- ② 눈꺼풀을 쓸어내려 곱게 감긴다.
- ③ 숨이나 백지로 턱밑을 고여 입이 열리지 않게 하고 흐트러진 머리를 손질한다.
- ④ 귀, 코, 입 등을 숨이나 백지로 막는다.
- ⑤ 시체가 굳기 전에 팔과 다리의 관절들을 가볍게 주물러 펴고 오그라들지 않게 하여 전신을 곱게 편다.
- ⑥ 백지나 붕대로 무릎과 두 발을 함께 당겨 매고 팔과 두 손을 모아 배 위에 자연스럽게 얹어 놓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백지나 붕대로 서로 엮어맨다.
- ⑦ 시체를 나무판자 위에 안치한다.
- ⑧ 깨끗한 흙이불이나 흰 천으로 시체를 덮고(머리까지) 병풍으로 가리운다.
- ⑨ 시체를 모시는 곳은 덥거나 습하지 않은 곳을 택하고 여름철 더운 때면 얼음을 배치하는

등 시신의 보전에 신경을 써야하고 소독을 하여 위생에 유의하도록 한다.

◆ 상제, 상주, 집례, 호상의 선정

상제 - 고인의 자녀

상주 - 상주를 대표하는 사람을 상주라 한다. 대개 장자가 된다.

집례 - 고인이 속한 교회의 교역자를 세우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상제들과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호상 - 고인이나 친척 중에서 집례자의 지시에 따라 일체를 총괄한다.

◆ 부고

장례일과 장지가 결정되면 곧 부고를 보낸다. 부고는 친척과 친지들에게 개별적으로 보내기도 하고 신문지상의 부고로 이를 대신하기도 한다. 공동체의 홈페이지에 알린다.

♣ “○○○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

교회의 성도 _____께서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주님 앞으로 가셨습니다.

- 장례식장 : ○○○교회 및 ○○○병원
- 시 간 : ○○년 ○○월 ○○일 (○요일) ○○시
- 집 례 : ○○○목사
- 상 제 : ○○○
○○○
- 호 상 : ○○○
- 장 지 : ○○묘지 ○○○○년 ○○월 ○○일
- 호 상 : ○○○

귀하

2. 장례절차

- 1) 장례는 3일장을 원칙으로 하고 장례일이 주일이 되는 경우는 2일장 혹은 4일장으로 조정할 수 있다.
- 2) 장례식장은 형편이 허락하면 교회가 좋으나 가정이나 병원도 무방하다.
- 3) 상이 나면 상제 중 고인은 즉시 공동체 교역자 또는 순장액 알겨 장례절차를 상의해야 한다.
- 4) 각 공동체의 장례사역팀의 운영 방침에 따라 신속하게 장례를 돕도록 한다.
- 5) 장례절차에 따른 예배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 제 1일 : 임종예배, 위로예배

임종시 즉시 공동체의 리더들에게 연락을 하고 공동체의 리더들은 임종예배와 위로예배를 당일에 드릴 수 있도록 한다.

• 제 2일 : 입관 예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후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입관한다. 입관시에 유가족과 교역자의 입회가 가능하고 입관 전에 잠시 기도한 후 입관을 마치면 순원들과 함께 입관예배를 드린다.

• 제 3일 : 천국 환송예배, 하관예배, 귀가 위로예배

※ 매일 드리는 위로 예배는 상가의 형편과 순의 사정에 따라 조절하고 귀가 위로 예배도 상가의 형편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 빈소를 차리고 문상객의 문을 받는다.

• 기독교예식에 의해 장례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내문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절하지 않도록 돕는다.

• 상위에는 사진을 놓는다. 사진 앞에 고인이 사용하던 성경책들 펼쳐 놓는다.

• 조의를 표하기 위하여 헌화를 할 시는 준비된 화병에 꽂거나, 그렇지 않을 때는 꽃의 줄기를 머리 쪽으로, 꽃이 자신을 향하도록 상위에 놓는다.

• 문상객의 예절

문상객의 인사말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슬픔 중에 부활의 신앙으로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등으로 한다.

문상객의 복장은 가증한한 검정색 예복이나 흰 옷을 입는다. 남자의 경우 넥타이만이라도 검은 것으로 맨다.